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13회 맞은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 상황리 개회

3면

다큐보다 더 다큐 같은 청춘들의 찐 연애이야기...새 화요 드라마 <남과여>

4면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①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들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 앞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② 수습 방송 PD와 CD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기법 강의를 듣고 있다. ③ 일민미술관 내 신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 수습사원들 ④ 수습사원들이 조별로 작성한 '만다라트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김선민

“우리도 이제 어엿한 DAMG의 기자, PD, CD입니다”

6주 인턴 실습과 2주 교육 거친 수습사원들, 12월 18일부터 현장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겠습니다.” (이수연 편집국 기자)

“제일 먼저 다가가고, 제일 늦게 떠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배준석 보도본부 기자)

“볼 땀 재밌고 끝난 뒤엔 여운이 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윤주 제작본부 PD)

“기존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 세상에 즐거움을 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가 되겠습니다.” (강문영 경영전략실 CD)

다부진 포부와 함께 동아미디어그룹(DAMG)의 미래를 밝힐 새 얼굴들이 12월 4일 입사했다. 동아일보 기자 7명, 채널A 기자 9명, 방송 PD 7명, CD 2명 등 총 25명의 수습사원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12월 4일부터 2주간의 입문 및 직무 교육을 받은 뒤 12월 18일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성장과 평가의 시간, 6주간의 인턴 실습

이번에 입사한 수습사원들은 8월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에 걸친 채용연계형 인턴 전형에 합격한 이들이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DNA 클립(60초 자기소개 영상) 등을 평가하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친 뒤 6주 간의 인턴 현장실습을 받았다.

편집국 인턴기자는 사회부 사건팀에서 6주를 보냈고 보도본부 인턴기자는 사회부 사건팀에서 첫 3주를 보낸 뒤 정치부, 사회부, 경제산업부 중 한 부서에서 남은 3주를 보냈다. 인턴PD들은 <도시어부>, <강철부대>, <급속 같은 내 새끼> 등 채널A 대표 프로그램 중 2개 프로그램에서 인턴 실습을 진행했다. 인턴CD들은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과 편집국 디프린티어센터에 배치돼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수습사원들은 “인턴 기간 멘토들의 격려와 코칭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실습 후에는 전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면접 'Back to the 20s'가 진행됐다. 'Back to the 20s'는 콘텐츠 주 소비층이면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의 인사이트를 DAMG 리더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입한 발표 형식의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인턴사원들은 '2023년 10월 26일 뉴스A(채널A 기자)',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기획(동아일보 기자)', '1990~2010년 인기 예능의 성공 요인 분석과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 기획(예능 PD)', 'DAMG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 구상(CD) 등 직군별로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도 전적인 발달과 제안을 쏟아냈다.

2주간의 입문·직무 교육 뒤 현장 배치

치열했던 인턴 전형을 거치며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수습사원들은 2주간의 입문 및 직무 교육을 통해 DAMG의 구성원

으로 거듭나게 된다. 1주 차 입문 교육은 DAMG의 역사와 제도, 비전을 배우면서 본인의 강점과 목표 등을 스스로 찾아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 같은 프로그램을 게임과 접목해 사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DAMG 역사와 비전을 주제로 한 '온라인 방탈출 게임',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한 '만다라트 액션플랜' 등 올해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좋았다. 2주 차 직무 교육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취재 윤리와 탐사 보도 기법, 기초 비즈니스, 콘텐츠 플래닝, 미디어커머스 등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알찬 강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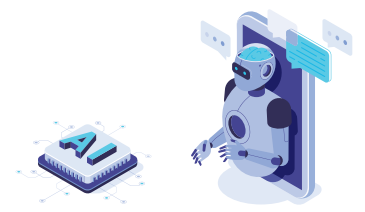
아비즈니스포럼 Dong-A Business



① 리처드 루멜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앤더슨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12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의 기조 강연을 하고있는 모습. ②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이 열린 신라호텔 대이니스티움을 가득 채운 청중들.

13회 맞은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 성황리 개최

세계적인 석학 강연에 온·오프라인으로 청중 2000여 명 참여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2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다리스킹 시대, AI 혁신과 생존 전략(In the Era of Derisking, Strategies for AI Innovation and Business Survival)'을 주제로 열렸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AI 혁신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며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세계 경제 선두주자로 올라가기 위한 AI 혁신과 경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

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동아비즈니스포럼은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 석학을 초청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최근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엔데믹(endemic, 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개최돼 더욱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정부, 기업의 리더를 포함한 1000여 명의 청중들이 포럼장을 가득 채웠고 부대 포럼인 '동아력셔리포럼', 'AI·빅데이터 포럼'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2000여 명이 참여

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펼치는 혁신 전략에 감동한 청중들의 박수와 호응으로 가득 찼다.

이번 포럼의 기조 연사는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2022 올해의 경영 도서'인 <크릭스(The Crux)>의 저자 리처드 루멜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앤더슨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루멜트 교수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일명 '크릭스'를 설정하고 본연의 강점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릭스는 암벽 등반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구간을 뜻하는 용어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를 의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공학 역량을 한국의 강점으로 꼽은 루멜트 교수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성공 방식이 크릭스를 돌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힘과 예측>, <예측 기계>의 저자인 아제이 아그라왈 캐나다 토론토 로트먼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AI 혁신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주문했다. 아그라왈 교수는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이 두려

워 AI에 대한 투자 적기를 놓치면 선발주자를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AI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수석 애널리스트, 아렉 쿠틀로브스키 답델 최고경영자 겸 설립자, 프랑수아 칸델론 보스턴컨설팅그룹 헨더슨 인스티튜트 글로벌 디렉터 등이 연사로 나서 지향적, 기술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AI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미래전략연구소 X2팀 배미정

중동으로 활동 영역 넓히는 DAMG

채널A, 국내 미디어 중 유일하게 11월 한국-중동 협력포럼 참여 편집국 기자들, UAE 글로벌 미디어 콩그레스 2023 참관



편집국 이지은(정책사회부)·이지은(국제부)·이승우(히어로스쿼드) 기자가 11월 14일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콩그레스 2023' 행사장에서 UAE 국영 통신사 WAM의 인공지능 기반 CMS를 시연하고 있다.

편집국 이지은(정책사회부)·이지은(국제부)·이승우(히어로스쿼드) 기자가 11월 14~16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콩그레스(GMC) 2023'에 참가했다. UAE의 국영 통신사 WAM이 주최하는 세계 미디어산업 박람회인 GMC

2023에 세계 172개국의 언론인과 미디어 업계 종사자 2만 3000여 명이 모였다.

GMC 2023에 참여한 257개의 미디어 기업 및 기관들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WAM은 AI를 탑재한 자체 개발 CMS를 선보였다. 기사

화하고 싶은 사건이나 행사의 이름과 장소, 시간을 입력하면 AI가 기사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가 데스크킹한 후 출고하는 방식이다. 행사 기간 내내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워크숍도 이어졌다.

GMC 개최에 앞서 11월 6~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중동 협력포럼>에는 채널A가 참여했다. 국내 미디어 기업 중 참여한 곳은 채널A가 유일하다. 이세형 채널A 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장은 "한국과 카타르의 경제협력 강화" 세션에서 "기존에 강세를 보여온 음악과 드라마뿐 아니라 음식, 여행, 교육을 테마로 한 K-콘텐츠의 해외 인기도 커지고 있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 수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하 채널A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 팀장과 편집국 국제부 이청아 기자도 12월 5~8일 카타르 해외홍보원 초청으로 카타르 도하에 방문했다. 2024년 1월 개최되는 아시아컵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프레스투어에 국내 미디어 기업 중에는 동아일보·채널A가 초청받았다.

편집국 정책사회부 이지은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DAMG 수상소식

보도본부 서상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11월 17일 열린 제37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채널A 서상희 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 기자는 의약품 안전 관련 보도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편집국 김소영 기자, 성균언론인상



성균언론인상은 '2023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의 젊은 언론인 부문 수상자로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를 선정했다. 성균언론인상은 언론 현장에서 충실하고 정확한 기사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된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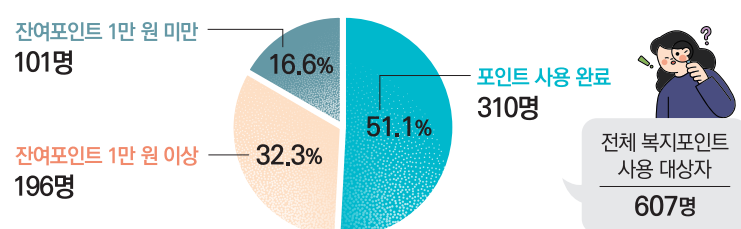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화정평화재단 구자룡 소장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6·25전쟁의 흔적을 찾은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 6·25 발발 후 한국어 첫 평병 미 보병 24사단 선발대가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 곳인 경기 오산시 '죽미령 평화공원', 중공군과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난 곳인 강원 인제군 '현리전투 위령비' 등을 찾으며 잊혀지고 있는 전쟁과 마주한다.

남은 복지포인트 연말까지 사용하세요

1만 원 이상 남은 사원 196명...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동아일보가 7월 1일 시행한 복지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잔여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12월 7일 기준 복지포인트가 1만 원 이상 남은 동아일보 사원은 196명이다. 전체 복지포인트 사용 대상자 607명 중 310명은 복지포인트를 전부 사용했다. 잔여 포인트 현황은 베네피아 홈페이지와 애플리

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여 복지포인트는 이벤트 포인트와 개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복합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때 복지포인트 2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 3만 원을 결합할 수 있다.

베네피아 자체 프로모션으로 동아일보 임직원에게 지급된 온라인 직영물 포인트(2만5000P)와 여행-레저 전용 포인트(1만5000P)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

인 직영물 포인트는 베네피아 직영물과 바로가게(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서비스)에서, 여행-레저 포인트는 여행-레저 카테고리 전용 상품 결제에 쓸 수 있다. 복지포인트 활용 방법으로는 바로가게를 통한 편의점·마트 매장결제, e쿠폰에서 외식·문화 등 필요한 교환권 구매하기, 하트시그널·금쪽이 굿즈 등 OTT·닷컴 상품 구매하기 등이 있다.

경영지원국 인사팀 이지연

다큐보다 더 다큐 같은 청춘들의 찐 연애이야기...새 화요 드라마 <남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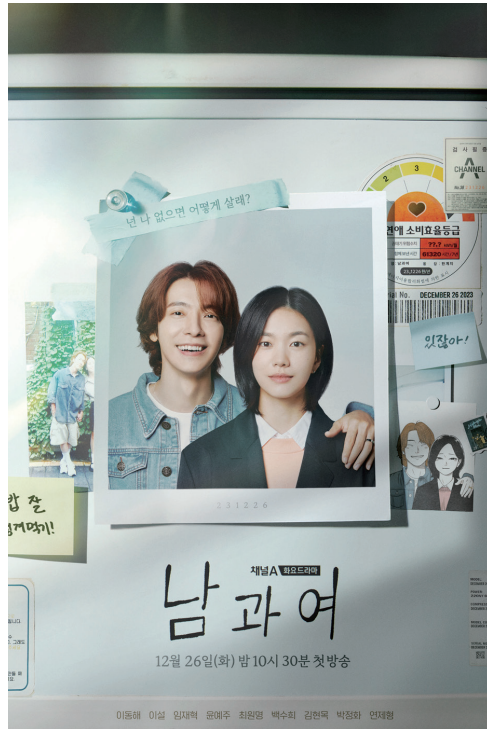
12월 26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

채널A 새 드라마가 이번 겨울 시청자의 화요일 밤 공략에 나선다. 청춘들의 극사실주의 연애 이야기를 담은 <남과여>가 출격을 앞두고 있는 것.

<남과여>는 만난 지 7년째 되던 날 밤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이성 곁에 있던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사랑과 권태로움 속 방황하는 청춘들의 연애를 현실감 있게 풀어낸다. 네이버 인기 웹툰 '남과여'가 원작으로, 이동해와 이설이 각각 주인공인 정현성, 한성욱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두 사람은 '판타지 제로, 현실 그 자체'인 7년 차 장기연애 커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무엇보다 티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 두 사람의 웹툰을 찢고 나온 듯한 '착불 싱크로율'이 화제가 되며 방영 전부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두 사람이 장기연애 커플이라면 공감할 법한 오랜 연인 간 애정과 권태로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과여>에는 이동해, 이설 커플 외에도 두 커플이 추가로 등장해 극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15년 지기 친구에서 특별한 관계로의 기로에 선 커플과 연상연하 커플이다. '남녀 사이 친구는 없다'더니 사랑과 우



드라마 <남과여>의 포스터. 동해와 이설이 주인공을 맡았다



정 사이에 놓인 두 사람의 모습이 풋풋한 설렘을 느끼게 해 줄 예정. 이들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연상연하 커플은 현실 고민을 담

은 로맨스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세 커플의 각기 다른 연애 스토리가 사랑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아프고 지쳐도 기필코 사랑이 하고픈 청춘들의 다큐보다 더 다큐 같은 현실 연애와 우정, 뜨거운 성장통이 담긴 채널A 새 화요드라마 <남과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최화정

"채널A 개국 12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념 포토월 찾은 DAMG 사원들



채널A가 12월 1일 개국 12주년을 맞았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DDMC 로비에는 개국 1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 포토월이 설치됐다. 각 국·실·본부장부터 최근 입사한 수습사원들까지 포토월에서 '인생 세컷'을 찍으며 채널A 개국 12주년을 기념했다. 다양한 표정과 포즈로 포토월에 선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사진을 모았다.



글·사진=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 ③ 최종 직장



이수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매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값진 사실을 찾아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 없이 배우겠습니다.
- ② 이번 겨울을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력부터 방한용품까지 제대로 준비해 알찬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윤진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심하되 겁 없이 나서고, 부족함은 솔직하게 인정해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② 대학 졸업을 위해 학기를 무사히 마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 달리를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박경민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들과 시대의 흥터를 기억해, 상처를 정확히 기록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신발장 구석에 있던 축구화를 꺼내려 합니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축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 초여름에는 권현의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원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내내 진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진실한 자세로 솔직한 말들을 끌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감사한 일들, 고마운 이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여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덕분에 연말 달력을 테리스터처럼 채워 나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근호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콘서트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자가 명료한 글로 독자를 설득한다면, 가수는 음악으로 청중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최유리, 권진아, 백예린의 음악으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김동욱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우선 인턴 활동에서 선배님들 보며 배운 점을 활용하여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도움이 되는 팀원이 싶습니다. 그 후에 저만의 시각으로 참신한 콘텐츠를 만드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 ② 채널A 입사 최종 과제를 준비하면서 옛날 예능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특히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따', '무한도전' 같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재미 요소를 요즘 시대에 맞게 활용하여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박윤주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볼 땀 재밌고 끝난 뒤엔 여운이 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잘 굴러보겠습니다!
- ② 지난주 처음으로 등산 스틱을 샀습니다. 국내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꽤 재밌습니다.



신한철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잘 듣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밤비'라는 이름의 닥스훈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닦았다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다리가 짧아서는 아닙니다.



오강후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인병하세요 저는 채널A를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예능을 만들어 꼭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 ② 저의 요즘 관심사는 사주입니다. 전부터 관심은 좀 있었었는데 요즘은 사주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곧 한 번 더 보러 갈 생각입니다.



이상준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따뜻한 선배님들, 귀한 동기들 만나 6주 잘 버텼습니다. 저도 주변에 좋은 에너지 주는 피디 되겠습니다!
- ② 검정, 남색 등 칙칙한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연두색은 1년 안에, 보라색은 3년 안에, 최종적으로는 핑크색까지 섭렵하겠습니다.



임윤아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많은 걸 배우고 느꼈던 인턴 과정을 거쳐 동아미디어그룹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식지 않을 열정으로 콘텐츠에 진심을 담아 채널A라는 캔버스에 새로움을 채워겠습니다.
- ② 방구미기에 맛이 들려 인테리어 소품들을 사모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새롭게 달라질 방 분위기에 벌써 설레는데요ㅎㅎ '겸성' 충만하게 살립니다~!



조재석 / 채널A
제작본부 PD

- ① 채널A 예능 팬에서 성덕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가진 새로움을 조금씩 덧붙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 ② 요샌 소극장 뮤지컬과 빈티지 패션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태연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부지런히 움직이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회에 필요한 기사 많이 쓰겠습니다.
- ② 수습기자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방한용품 알아보고 있습니다 ^^



권경문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동아미디어그룹 가족이 돼 기쁩니다. 기본과 원칙을 잊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로서 활짝 열린 성장판을 가진 지금 많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기본을 쌓겠습니다.
- ② 시험을 위해서가 아닌,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김세인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마침표를 잘 찍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쓰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채널A의 기자로서 좋은 보도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 ② 추리 게임 책에 푹 빠져있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 시작하게 됐는데 각 사건마다 주어진 단서를 통해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하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직 추리 끝나우지만 명탐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예빈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미디어 외교력을 제고하는 일은 어느새 언론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채널A가 국내를 대표하는 언론사가 되는 과정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②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밴드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수습이 끝나고 좀 여유로워지면 다시 흥대 인디밴드에서 취미로라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배정현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우선, 채널A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깊은 취재와 좋은 보도를 하는 기자로서 역량을 키운 뒤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특파원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도 되고 싶습니다.
- ② 요즘은 충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판세를 보는 것이 흥미로워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석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제일 먼저 다가가고, 제일 늦게 떠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을 향한 끈기와 집요함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튼튼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 달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 동아마라톤대회를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건강도 챙기고, 대회 기록도 단축시키고 싶습니다!



이동한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에 기자가 쓰여있었습니다. '저 사람 뉴스면 믿고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제 관심사는 오직 '채널A 뉴스'뿐입니다.



임종민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가리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야, 흥미로운 취재원에만 몰두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와 만난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설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최다함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백절불굴(百折不屈)하겠습니다.
- ② 토트넘 리그 우승을 꿈꿉니다.



하지현 / 채널A
경영전략실 법무팀

- ① 법무팀 일원으로서 사우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②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과 그에 어울리는 와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③ 법률사무소 한비



이희문 / 채널A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 ① 제 첫 회사 생활을 채널A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②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F1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